

# 어린이 성경의 문체 정립을 위한 소고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성경을 생각하면서-

전무용\*

## 1. 들어가는 말

오래 전부터 어린이 성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으며, 그 동안 이런 저런 모양의 어린이 성경이 나왔다. 어린이 성경으로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점은, 읽을거리로서 출판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경전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성경이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인가?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성경을 주어야 하는가?

이 글은 어린이 성경을 만든다고 할 때에, 어린이 성경의 기본 문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을 제 1의 과제로 삼는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좀 더 쉽게 풀어서 번역해 줄 필요가 있는 말들을 찾아내고, 그 말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을 제 2의 과제로 삼는다.

이 글은 대답이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 이 문제들을 과제로 삼고 논의를 출발한다.

## 2. 성경이 어려운 이유

### 2.1. 낱말의 차원

#### 2.1.1. 한자어 문제

어린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어린이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한국 교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읽고 있는 『개역한글판』 성경이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개역 성경이 어려운 것은 어린이들에게만이 아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어렵고, 어른들에게도 어렵다. 『개역한글판』을 간이국한문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읽기 어려운 성경이다. 그저 한글을 따라서 읽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뜻을 알 수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는 조건으로 제시한 ‘블레셋 사람의 양피(陽皮) 일백’을 ‘양피(羊皮) 일백’으로 오해하는 것이나,\*\* 이는 예수님의 구속(救贖)을 ‘예수님이 나를 구속(拘束)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나, ‘유월절(逾越節)’을 ‘유월절(六月節)’이나 ‘유월절(逾月節)’로 오해하는 것이나, 모두 다 잘못된 이해이다.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 본문을 한글로만 읽으면서 “총애를 받지 못하다”라는 뜻이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

\*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시인.

\*\* 전무용,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성서한국』 1999년 여름, 제 45권 2호, 21-23쪽.

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찾아보기라도 하지만, 처음부터 “총명”으로 틀리게 이해해 버리면, 죽는 날까지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하면서, 자기가 틀리게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쳤다.

(창 29: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창 29:31) 주님께서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개역개정판』만 해도 한자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위의 『표준새번역』(개정판)과 대조해 보면, 문제가 한자어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이 『개역개정판』보다 뜻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졌다.

“제사장, 유월절” 등의 낱말들도 일상 생활 속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성경의 특성상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말들이다. 이런 말들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본문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낱말 사전은 필요하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의 경우에, 이 말이 어떤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인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한자어로 어떻게 적는지, 그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추석’이라는 말을 어떤 한자어로 쓰는지 모르더라도,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는 안다. 어린이 성경은, 성경을 읽는 어린이들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서는 상당한 양의 난하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낱말 사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어린이용 편집판을 전제로 하여 난하주를 확장하는 방식이나, 낱말사전을 뒤에 따로 붙이는 방식을 채택하여 어려운 낱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2.1.2. 성경의 문화적 배경 이해와 관련된 문제

다른 예를 하나 더 생각해 보자. “犧牲(희생)”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에서 천지나 종묘에 제사 지낼 때 산 짐승 특히 소나 양이나 돼지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던 것을 나타내는 말로써,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뜻을 다 알 수 있는 말이다. 또 은나라의 탕왕이 자기 몸을 희생으로 바쳐 하늘에 기우제를 지낸 고사를 알아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까지 다 알고서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 그것을 전혀 모르더라도, “희생하였다, 희생되었다, 희생 정신, 희생적이다” 등의 말은 흔히 쓰기 때문에, 한글로만 적어도 대개의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말이다. 의미의 배경이 아주 어렵다 하더라도 일상어로 흔히 사용하는 말은 어렵지 않게 뜻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본문에서, “희생”이, ‘소나 양을 잡아서 바치는 제물, 또는 그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창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래서 『개역개정판』이 나왔고,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나왔다. 『개역개정판』의 본문은 이

부분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창 46: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개역개정판』에서는 『개역한글판』보다는 의미상 보완이 되어서, “희생”의 본 뜻을 모른다 해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다음의 『표준새번역』(개정판) 본문을 보면, 『개역개정판』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쉽다.

(창 46:1)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이 잘 되도록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번역한 성경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의미를 옮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읽어도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나왔다. 이제는 이 성경을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희생제사” 같은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의 뜻을 알려고 국어사전이나 옥편이나 한문 자전을 찾아가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길로 가서는,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희생: ①신명에게 바치는 산 짐승. ②뜻밖의 재난 따위로 헛되이 목숨을 잃음. ③[납이나 어떤 일을 위하여] 제 몸이나 재물 따위 귀중한 것을 바침.\*

흔히 시중에 나와 있는 스테디바이블들의 한계 속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국어사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반쪽 짜리이다. 고대 중국에서 이 용어가 생긴 배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 안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서 사전을 찾아서 보아야 한다. 다음 낱말의 해설은 『해설관주 성경전서』\*\*의 “용어 해설”에 실려 있는 설명이다.

제사(식사) : 제사는 옛날의 모든 민족들의 경우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고 특히 중요하고 성대하게 거행했던 예배 형식인데,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거나 형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뜻으로 드렸다. 이스라엘에서는 초기에 숲한 지방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렸다(<신명기> '안내' 참조). 제사에는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가 있다. 피 없는 제사에는 과일과 빵과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이 속하고, 피 있는 제사에는 소와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알맞다. 아주 중요한 제사인 번제\*는 보통 하루에 두 번(출29:38-41)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드렸다. 가장 일반적인 제사인 화목제에서는 본디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죽였다. 내장은 한테 모아 번제단 위에 바치지만, 잡아죽인 짐승의 고기는 제사 식사 때 성소에서 가족이나 회중\*이 나누어 먹었다. 이 식사를 통해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목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교제의 제사'로 옮기면 가장 그럴 듯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나 한 무리가 특별한 일(병이나 곤경에서 벗어난 것 같은)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와 일정한 경우에 드리기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감사제(이를 더러는 '찬양제'라고도 한다)를 구별할 수 있다. 뒷 경우에는는 피 없는 제사 예물도 덧붙는다(레7:12-13).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무거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때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 『동아새국어사전』(동아일보사 편집국, 1994).

\*\* 『해설관주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1997, 독일성서공회판 해설.

집승의 피\*로써 일정한 속죄 의식을 거행하고 기름 부분은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레4장).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었다(레6:17-23). 이 제사는 고의가 없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을 속하는 효력이 있었다. 속죄제와 비슷한 속건제는 제사를 넘어서서 배상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고 또 알고서 일부러 지은 일정한 잘못들도 이 제사로 속할 수 있었다(레5:14-6:7). 소제(레2장)는 밀가루나 기름으로 구운 것이나 땅의 첫 열매 같은 천연물로 드렸다.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레5:11; 6:13-16; 민5:15)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제사와 결부시켜 드리기도 한다(민28-29장). 소제물 한 줌은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린다. 붉은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전제는 늘 다른 제사, 특히 번제와 결부된다(민28-29장). 향은 유향과 여러 다른 구성 요소들을 특별히 섞어 만들었는데, 이는 특정한 제사장 가문의 직무상의 비밀에 속했다(\*향품\*). 유향 섞은 것은 향로(레10:1)나 성소 안 쪽에 있는 분향단(눅1:9-10) 위에서 불살랐다. 예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다(그렇지만 마5:23-24; 8:4; 9:13; 12:7 참조).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을 구약 성경의 제사 의식보다는 사52:13-53:12에 나오는 하나님 종의 노래에 비추어 생각하시고 풀이하셨다(막10:45; 14:22-24병).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사 제도의 종말이자 완성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선포했다(롬3:25; 엡5:2; 히9:14,26; 10:10,14; 13:10-13 참조). 그리스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배로 재현하는 것에 근거하여 살아간다(고전11:23-26).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서, 또 이 구원 행위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교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롬12:1. 15:16 참조). 이로써 새로운 제사장 직책과 새로운 제사가 생겨났다(벧전2:5,9; 계1:5-6; 5:9-10). 이 제사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벧전2:9; 히13:15; 계5:8; 8:3-4) 온 세상을 위해 기도 드리는 것이고(딤후2:1-6),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갈6:10; 빌4:18; 히13:16; 약1:27). 관련용어 : 번제, 화목제, 감사제, 속죄제, 소제.

어려운 한자어라 하더라도, 어린이에게 어릴 때부터 한자를 교육하고 있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어려운 한자어를 쓴 성경이라 하더라도, 잘 가르치면 어린이들이 배우지 못할 까닭이 없다. 5세나 8세에 한시를 썼다는 조선조의 한학자들을 들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백 년 전의 한학자들이 배워서 썼던 문장들을, 지금 사람들이 배우지 못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따로 한자어들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낱말 차원의 문제 가운데서 한자어 문제만이 아니다. 번역어의 의미와 그 말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문제와, 이 말의 원어 곧 번역되기 이전에 사용된 말이 가지고 있는 뜻과 문화적 배경까지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성경을 처음 접하는 초신자들이 언제나 부딪치는 과제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사용된 낱말을 설명하려면,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알 수 있도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원어의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 2.1.3. 전문 용어

어떤 말이든지 일상 생활에서 그 낱말을 늘 접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 말이 어려운 한자어에서 온 말이든지, 영어나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반대로, 한 번도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결국 아무리 쉬운 말을 쓰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든지, 매번 새로 가르쳐 주어야 말의 뜻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수준의 사람에게 어려운지, 어떤 수준의 사람에게 쉬운지도, 모든 사람에게 매양 같지가 않다. 매월당 김시습은 5세에 한시를 썼다고 한다.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가르쳐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어린이가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보통 수준으로 공부를 한 어린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성경은 그 속에 사용한 용어들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낱말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쉽거나 어렵다는 말은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 어렵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접할 수 없는 낱말들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추상어보다 사물어가 더 이해하기 쉽다. 또 사물어라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은 어렵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접해 본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어려울 것이 없다.

전문적인 용어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을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의 음역이기 때문도 아니고, 어려운 한자어나 라틴어 같은 말에서 온 말이기 때문도 아니다. 낱말 차원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데도 어려운 말들이 있다. 그 예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사물을 가리키는 낱말들이다.

(행 27: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행 27: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 본문들에서, “고물, 닻, 이물, 거루, 킷줄, 돛” 들은 한자어가 아니라 토박이 말들인데도,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바닷가에 살면서 배를 생활의 도구로 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이는 어린이라 해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가 뱃사공이고, 아버지와 함께 배를 접하면서 사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런 말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배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에서 살펴본 “희생제사”와 같은 말은 성서 사전으로 찾아 들어가서 뜻을 알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물, 닻, 이물, 거루, 킷줄, 돛” 들은 성서사전을 보아야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이다. 국어사전의 설명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들이다. 국어사전의 설명으로 뜻을 알 수 있는 말들에 대하여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말의 뜻을 아는 일은 독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린이 성경의 경우에는, “이물, 고물”과 같이, 더 쉬운 다른 말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경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 성경에서 낱말 사전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린이용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배의 그림을 넣고 거기에 각 부분의 이름을 적어 넣는 정도의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내용을 안내하는 그림이라면 정밀 묘사의 성격이 있는 단색 펜화가 적합할 것이다.\*\*

위 두 범주에서 살펴본 대로, 낱말의 층위에서의 쉽고 어려움의 문제는, 말 자체의 쉽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일상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하는 문제와

\* 장기적인 학습을 위한 어린이 성경 번역의 선택성과 배제성, 『성경원문연구』 6호(2000), 김희자. 68-70 참조.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설문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삽화가 있는 성경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점을 밝혔다.

\*\* *The Learning Bible*에서는 ‘겨자’(1768쪽) ‘낙타’(1782쪽) 등의 동식물을 가는 선으로 처리한 펜화를 넣어서 보여 주고 있고, 332쪽에서는 신 6:8의 ‘손에 매거나 이마에 붙이는’ 경문 띠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언어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말은 따로 없다.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은 어렵고, 생활 속에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말은 쉽다.

#### 2.1.4. 어려운 낱말에 대한 해결책

쉽고 어려움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더라도 같은 여건 안에서 같은 내용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 GNB가 나름대로 성경 내용을 쉽게 번역하려고 애를 많이 쓴 성경인데, CEV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쉽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righteousness”라는 낱말을 살펴보면, KJV에서는 로마서에서만 33회를 사용하였는데, CEV에서는 로마서에서 이 말이 6회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그 맥락에 맞도록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였다.

Therefore if the uncircumcision keep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shall not his uncircumcision be counted for circumcision? (KJV Ro 2:26)

If the Gentile, who is not circumcised, obeys the commands of the Law, will not God regard him as though he were circumcised? (CEV Ro 2:26)

여기서 보면, KJV에서 “the righteousness of the law”로 번역했던 말을 CEV에서는 “the commands of the Law”로 번역하였다. “의”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사물어가 추상적인 언어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표준새번역의 번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용 성경의 편집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더 쉬운 번역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쉬운 번역을 어린이용 성경의 설명 부분에 포함시켜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의미의 쉬운 표현으로 본문을 바꾸는 방법으로 어린이용 성경의 출판을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용 성경을 번역한다고 할 때, 새로 번역 과정을 처음부터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계획이고, 새로운 성경의 번역이 또 다시 10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1년 이내의 단기적인 계획으로, 결정된 번역 본문의 쉬운 표현을 찾아서 『표준새번역 어린이판』을 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문을 그대로 두고 난하주의 확장으로 ‘어린이용 편집’을 계획할 수도 있다. 『표준새번역』(개정판)에는 이미 많은 난하주가 있어서, 어려운 말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창세기에만 100개, 마태복음에만 192개의 난하주가 있다. 이들은 이미 적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낱말 사전의 기능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의 난하주를 크게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다.

##### ① 낱말 풀이인 경우.

경문 곱 “성경 구절이 들어 있는 곱으로서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님”

표징 “12:38-38의 ‘표징’은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복음 “또는 ‘기쁜 소식’”

##### ② 그 낱말의 배경을 안내하는 경우.

유월절 “출 12:143, 21-28을 볼 것”

무교절 “출 12:15-20을 볼 것”

##### ③ 원어를 밝혀 주는 경우.

일점 일획도 “그, ‘한 이오타’”

은전 “그, ‘스타테르’. 두 드라크마, 곧 네 드라크마에 해당함”

반석 “그, ‘페트라’

④ 음역된 낱말의 뜻을 설명하는 경우.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달란트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십오년 품삯”

⑤ 달리 번역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경우.

계보는 “또는 나심은”

마태복음에서 어린이 성경을 염두에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낱말들을 임의로 뽑아 보았다. 이러한 낱말에 설명을 더 붙이는 편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용 편집에 192개의 난하주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난하주를 더 확대한 ‘어린이용 편집’이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합심하다, 모태, 잉태하다, 태중, 고을, 유향, 몰약, 식물, 곳간, 의, 금식하다, 박해, 계명, 공의회, 자선, 영경귀, 무화과, 희생제물, 혈루증, 정죄하다, 인자, 회당,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징조, 누룩, 겨자씨, 성전세, 맷돌, 완악하다, 보좌, 분개하다, 확, 제단, 제물, 불법이 성하여, 광야, 방주, 달란트, 창세 때, 옥합, 향유, 무화과나무, 방중, 세례, 등경, 들보, 희생제물, 정죄하다, 열두 군단, 인자, 보좌, 관저, 봉인하다, 예비일, 미혹하다.

마태복음에서 뽑은 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았다.

- 1) “확, 맷돌”과 같이, 기본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낱말들. 이 사물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어렵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맷돌”과 성경에서 말하는 “맷돌”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 2) “유월절, 무교절”과 같이,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있는 낱말들. 이 말들은 배경까지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이므로 어렵다.
- 3) “음행하다”와 같이, 어린이들의 환경에서 접하기 어려운 낱말들.
- 4) “영경귀, 무화과, 백향목, 녹보석, 당아새” 등, 동식물 광물의 이름들.
- 5) “사사, 선지자” 등 특별한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낱말들. 이 말들도 그 일까지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
- 6) “救贖(구속), 人子(인자)” 등의 말들은 한자어로 적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는 말이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도 있다.
- 7) “열두 군단, 봉인하다”와 같이 당시의 사회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말.
- 8) “나병, 혈루증, 중풍병” 등과 같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병.
- 9)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과 같이, 음역된 말 중에서 뜻을 알면 도움이 되는 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려운 낱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째, 낱말 사전을 실어 주는 방법

둘째, 사진 자료를 실어 주는 방법

셋째, 그림 자료를 실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새로운 낱말도 접하면서 그들의 경험의 세계를 확장해 가야만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낱말을 찾아낸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르쳐서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르는 말도 배워서 알고 나면 그 순간 아는 말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본질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린이들이 읽을 성경을, 따로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을 한다면, 이는 복음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본문에 짐을 잔뜩 실어서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을 찾아내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어린이를 교육할 성경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일차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낱말의 경우에는 낱말 사전을 따로 붙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낱말 사전은 국어의 의미를 쉽게 밝혀주는 기능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것이다.

## 2.2. 문장의 차원

표준새번역을 읽은 분들은, 이 성경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분들의 말 속에는, 새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던 뜻을 알 수 있게 된 기쁨과, 잘못 알았던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된 기쁨이 가득 담겨 있다.

“읽기 쉽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성경에서 사용한 낱말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낱말의 층위에서 생각한 것이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개역한글판』 성경에서 사용한 적지 않은 한자어들은, 한자를 알아야 뜻을 알 수 있는 말들이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인자”나 “유월절”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한자어를 쓰지 않고 쉬운 말로 번역하였다. 이것이 『표준새번역』(개정판)이 어렵지 않은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표준새번역』(개정판)의 문장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머리) 속에 들어 있는 “독자 자신의 토박이 문장”과 일치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의 언어가 있다. 자기의 방언이 있다. 자신의 ‘토박이 말’이 있는 것이다. 서울 사람에게는 서울 사람의 토박이 말이 있고, 각 지방에는 그 지방의 방언이 있다. 누구든지 자기의 토박이 말로 말하고 들을 때 가장 편하고 쉽고 자연스럽다. 우리 집에 놀러 온 아내의 친구가, 깨끗한 서울 말로 우리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자기 친정 엄마와 전화를 할 것이 생겼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느닷없이 본토박이 경상도 부산 사투리가 튀어 나왔다. 그 사람의 뇌에 기억된 언어 체계 속에 서울 말과 경상도 말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랭귀지가 독자적으로 살아서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2개의 랭귀지 체계가 토박이 말로 학습되어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선천적으로 랭귀지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사춘기 전후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와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을 데리고 이민을 가면,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는 3개월이면 새로운 언어를 완전하게 토박이 말로 배운다. 그 이후의 나이에 이민을 간 어린이는 3년이나 30년이 지나도 새로운 언어를 완전하게 배우지 못한다. 한 언어가 완전하게 자기의 토박이 언어로 고착이 되고 난 다음에 배우는 언어는 영원히 외국어가 될 수밖에 없다. 경상도 어린이가 강원도로 이사하여 강원도 방언을 배우는 것이나, 서울 어린이가 전라도로 이사를 가서 그 지방 방언을 배우는 원리도 외국어의 학습 능력과 같다. 이미 그 이전의 언어가 토박이 언어로 고착된 다음에는, 새로운 언어는 영원히 2차 언어 또는 외국어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토박이 말이 가장 친밀하고 친숙하다. 그 말은 엄마의 헛바닥으로부터 배우는 말이다.

문장에도 이러한 차원의 ‘토박이 문장’이 있다. 어릴 때부터 읽고 써 온 문장이 사람들의 토박이 문장이다. 현대의 한국인들에게는 그들의 토박이 문장이 있다.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읽고 써 온 문장이 그것이다. 편지를 쓸 때, 읽기를 쓸 때, 사람들은 이 문장으로 자기의 글을 쓴다. 그 문장이 자기의 ‘토박이 문장’이다. 사춘기 이전까지 가장 많이 접하는 문장언어가 그 어린이의 ‘토박이 문장언어’가 되는 것이다. 개역한글판의 문장언어를 가장 많이 접하게 하면, 어린이라도, 『개역한글판』 성경의 문장언어가 1차 토박이 문장언어로 머리 속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한 어린이에게는 개역한글판의 문장언어가 전혀 낯설지 않게 된다.

젊은 세대에게 『개역개정판』은 문체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현재 학생 청년들이 학교에서 읽고 배우는 문장과는 문법적인 특징이 다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문체적인 특징의 차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 또 하나의 랭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다.

언어의 역사 속에서 똑같은 양상을 띄고 있는 예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중국어도 오랜 역사를 두고 변화해 왔다. 그 결과, 이천여 년 전에 기록된 논어나 맹자 대학 중용 등 고전 한문 문장들은 그 기록 자체로 내용이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읽히고 쓰여 왔다. 그 문장들은 유교 경전들을 기록하기 위한 특별한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이 사용되던 당시의 일상어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일상어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그리고 그 차이는 두 언어 표현이 상당히 다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조차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고전 한문 문장들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물론 똑같은 한자를 사용하는데도 그렇다. 읽을 수 없으면 이해할 수도 없다. 반대로 이해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논어 맹자를 배워서 고전 한문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된 사람이 현대 중국어를 읽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현대중국어를 배운 사람은 물론 고전한문을 읽지 못한다. 이는, 서로 다른 랭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이다. 고전한문을 잘 읽을 수 있고, 그 한문으로 문장도 쓸 수 있는 사람은, 입말이 없는 문장언어를 하나의 랭귀지로 습득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한문을 입말이 없는 문장언어로만 읽고 쓸 수 있었다. 입말이 없는, 글말만 있는 랭귀지이다. 그 문장으로 논문도 적고, 신변 잡기도 적고, 역사 기록도 적고, 무엇이든 적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은, 현재 어린이들이 배워서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문장언어로 적어야 한다. 교회교육 안에서, 개역한글판 성경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개역개정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그 문장언어를 암송시키고, 아주 많이 읽게 하고, 그래서 그 문장언어가 그 어린이의 머리 속에 토박이 문장언어로 자리잡도록, 사춘기가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러한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대가를 많이 치러야 한다.

## 2.2.1. 백년 전의 토박이 문장

백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우리 말을 배우면서, 글말과 입말을 동시에 배웠다. 그 차이는 적지만, 그 당시의 글말들은 그 당시의 입말과 문법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록으로 적던 문장 언어들은 그 당시의 입말을 그대로 반영한 글말들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형성되어 나름대로의 문법 형식을 갖추면서 내려온 문장언어이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문장이라 해도 그 이전 시대의 오랜 삶이 녹아 들어가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 당시의 입말이 그대로 글말(문장언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의 문장언어에는 두 가지 층위의 문장언어가 있었다. 당시의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이 두 가지 층위의 문장언어들을 나름대로 구사하고 있는데, 경전언해체\*의 문장언어들을 배워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고, 홍길동전이나 춘향전으로부터 내려온 고소설의 문장들, 곧 순 한글 문체의 문장을 익혀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었다.\*\* 이는 그 당시 한국인들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당시의 성경이 두 가지 문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다. 그 하나가 『구역』이고, 다른 하나가 『국한문(선한문) 성경』이다. 이 두 가지 문체는\*\*\*, 엄밀하게 말해서, 둘 다 현실 입말의 반영은 아니다. 국한문 성경의 경전언해체 문체는 한문 유교 경전의 번역으로부터 형성된 문체로서, 개념어는 모두 한자어이고, 조사 어미만 한글을 사용하는 문장이다. 구역의 문장은 전통적인 순한글 문체로서, ‘-라 종결형’ 문장인데, 우리말 보통의 입말은 ‘-라 종결형’을 사용하는 입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입말도 있다. 어떤 지역의 방언들은 입말의 종결형으로 “아이라, 기라, 아니어라, 기(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지라” 등, ‘-라’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종결형이 오랜 기록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의 글말의 종결형으로 정착 사용된 것이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등 어떤 지역의 방언들은 “아니아/여, 기야/여, 이리 와(아), 저리 가(아), 그러” 등 ‘-아/어, -야/여’를 종결형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말들이 현대소설의 지문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중이 사용하는 평서형 글말의 종결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혹시, 개인들의 편지글들로는 사용된 적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문 잡지의 기사 등의 평서형 문장의 종결형으로는 채택된 적이 없다. 이는 엄밀하게 말할 때, 입말과 글말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한문 성경』은 그 당시의 지식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지식인들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토박이 문장’이, 한문을 익히면서 읽었던 ‘경전언해체\*\*\*\*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문을 읽은 세대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 문장으로 된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었다.

그 반대로 1911년에 출간된 『구역』 성경은, 문장의 기본 종결형을, 당시의 일반적인 문장 어법을 따라서 ‘-라’ 종결형으로 하였다. ‘-라’ 종결형의 문장 어법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길동전 등의 고대소설의 문체로 이어지며, 이는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던 옛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그 당시의 입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입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문장이었다. 그래서 1938년의 개역과 1952년 이후의 개역한글판과 1998년의 개역개정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아 왔다. 이 성경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옛 문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경전다운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한국 교회의 보수성 때문이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개역의 문체가 입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강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개역의 문장 언어는 이제,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거의 외국어에 준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랭귀지이다. 그들의 언어가 아니다. 그들은 이 문장으로 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다. 결심을 하고서 성경을 통독하려고 달려붙어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이 문장이 그들의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 흔히 “국한문혼용체”라고도 하는 문체인데, 성경에서 “간이국한문”이라고 한 문체와 구분하여 “경전언해체”로 부른다. 다음 “기미독립선언서”가 바로 이 문장이다.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 한글 문장의 문체에 대해서는, 줄고, “『新約全書국한문』(1906)의 본문 계보 관계 연구” 『성경원문연구』 10호, 90-109쪽 참조.

\*\*\* 위의 글 참조.

\*\*\*\* 전무용, 위의 글 참조.

## 2.2.2. 현대의 토박이 문장과 새로운 번역 성경

지금 글말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다’ 종결형 문장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으로부터 신 문물을 받아들인 세대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으며, 춘원과 육당의 신문학 작품들로부터 시작해서, 일제 시대를 거쳐 일반화된 문장 언어이다. 흔히 ‘-라’ 종결형 옛 문장들을 문어체라고 하고, ‘-다’ 종결형의 새로운 문체를 언문일치의 구어체 문장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이름은 다분히 인상적인 평가이다. 오늘날의 신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문체인 ‘-다 종결형’ 문장은 오늘날의 입말과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글말이다.

대부분의 언어들이, 높임의 뜻을 담은 입말로는 ‘-오/요’를 종결형으로 붙이고 있지만, 이것도 신문 잡지 등의 일반 평서문의 문장언어로 정착된 적은 없다. 높임이라는 형식이 담고 있는 주관적 속성과 개인적 속성 때문이겠지만, 사실 ‘-요’를 종결형으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실제로, 언중들 앞에서 사용하는 입말로는 ‘-오/요’를 종결형으로 하는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중고등학교 교실에서나, 교회학교 설교에서나, 형식적으로 좀 가벼운 모임에서나,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말의 종결형으로 ‘-요’ 종결형 입말은 아주 부담 없이 흔히 사용되는 언어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러한 종결형을 정식 문장의 종결형으로 사용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 이러한 종결형의 장점은 친밀감이 있다는 점과, 입말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을 때에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점 들을 들 수 있다. 글말과 입말이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

단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이 입말이 일반적인 글말의 종결형으로 채택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문제를 알 수 있다. 위에서든 말했지만, ‘높임’이라는 형식에는 말하는 이의 인격성이 내포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신문 잡지 등의 기사문이나, 논문의 논술 등은 객관성을 요구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말하는 이의 주관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러한 문장 언어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이, 형식적으로는 주관성이 있는 종결형을 피해서, 객관성을 담아낼 수 있는 쪽의 언어 형태를 종결형으로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언어든 말하는 이가 배제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다’ 종결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말하는 이의 말인 것이다. 지금 이 글도, 중립성이 있는 ‘-다’ 종결형 문장으로 적고 있지만, 말하는 이인 필자가 문장과 사유로부터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어로 진술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한, 화자조차 배제되는 객관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 (1) 그래도 지구는 돈다.
- (2) 그래도 지구는 돌아요.
- (3)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이 세 문장에서, (2)와 (3)이라고 해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객관적 사실 자체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3)의 언어는 해방 이후에 아동문학 작품의 언어로 시도되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다. 박창해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해방 이후에 아동문학을 하는 분들에게 ‘습니다’ 체의 종결형으로 문장을 적어 보도록 권유했다고 하고, 그 권유를 받아들인 아동문학 작가들이 이러한 형식의 종결형으로 좋은 작품을 넘으로써, 새로운 종결형이 아동 문학 작품을 위한 종결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문장이 문학의 언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습니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은 문장이 문장언어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한 문장이 문장 언어로 정착된 것이다. 당시의 아동문학 작가들이 (2)의 문장을 아동문학의 문체로 채택을 했다면, 이 도 또 하나의 정식 문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현대의 새로운 문장이 성경의 번역에 본격적으로 채택이 된 것은 1967년의 『신약전서 새번역』이다. 이 성경은 위의 (3)의 문장 형식을 기본 문체로 하였다.

(신약전서새번역 1967, 마가 4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나님  
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5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  
으라.”

개역한글판의 성경에 비해서 볼 때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습니다”라는 입  
말형 종결형을 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경이 나오고 나서 1972년에  
『공동번역 신약전서』가 나온다. 이 성경의 국어 문체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들 수 있  
다. ‘인자(人子)’를 ‘사람의 아들’로 번역할 만큼, 한자어를 토박이 말로 풀어서 적었다는 점이  
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씨를 “-니다, -시오”라는 격식체 문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1967년에 신약을 번역할 때에 이미 많이 연구가 되었다. 당시의 설문 결과를 보면 아  
주 흥미롭다.\*

1. 시문체(時文體) 곧 “하였다” 조를 사용할까? (73%)  
현대 성경에 사용된 경전체 중 “하였느니라” 조를 사용할까? (27%)
2. “가라사대”를 그대로 둘까? (33%)  
“가라사대”를 “말씀하시되”로 할까? (67%)
3. 예수의 말씀을 모두 경어로 할까? (59%)  
현재 성경에 있는 대로 할까? (20%)  
예수께서 공중연설 조로 말씀하신 데는 경어로 하고 개인 대화에는 “하였느니라” 혹 “하  
였다” “아니하였느니라”로 할까? (24%)
4. 순수하고 아름다우면 고어라도 보존할까? (21%)  
고어는 전부 없앨까? (76%)
5. “당신”의 사용  
하나님을 “당신”이라 불러 어떠한가? (좋은 17%)  
“당신”을 아니 쓰면 그것을 대신할 좋은 이인칭 대명사를 지적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  
여호와, 주님)
6. 성경에  $\alpha\tau\omicron\varsigma$ 를 “떡”이라 번역하였는데, 이를 “빵”이라고 번역하면 어떤가? (67%)

1961년 당시의 설문 조사에서는 예수의 말씀을 전부 격식체(경어)로 하는 것을 지지한 것이  
59%였으나, 1967년의 번역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1972년의 공동번역 신약전서에 이르  
러서야 번역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번역이 출간된 뒤에 교계에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그  
리하여 1977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비격식체(반말)로 고쳐졌다.

(공동번역 1972, 마르 1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 정용섭, “성서 개역사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성서한국』 7권 2호, (1961. 4.) 6-13쪽. 묶음표 안의  
%는 그 문항에 대한 지지율이다.

이 기쁜 소식을 믿으시오” 하셨다.

(공동번역 개정판 1977, 마르 1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래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15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공식적으로 논문으로 논의된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이 두 가지 문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높임말을 쓰도록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견해와, 예수님을 예의 없는 분으로 만들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기쁜 소식”이 “복음”으로 개정된 것은, 의미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걸음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단순히 1900년 전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용어로 되돌아간 것이라면 사용자들을 고려한 보수적인 정서가 개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1967년의 『신약전서 새번역』과 이를 바탕으로 개정한 『표준새번역 신약』(1993, 2001)은 기본 문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표준새번역개정판 막 1장)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신약전서 새번역』(1967)이 “선포하셨습니다”로 번역했던 것을, 『표준새번역』(1993, 2001)은 “선포하셨다”로 번역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차이이다.

“떡”과 “빵”은, 1967년의 『신약전서 새번역』에서는 “떡”으로, 1972년 이후의 공동번역에서는 “빵”으로, 1993년의 표준새번역에서는 “빵”으로, 1998년의 『개역개정판』에서는 “떡”으로 번역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매번 이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른다. 용어의 선택이 다만 의미상으로 어떤 낱말을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낱말이 주는 정서적인 느낌까지도 심각하게 용어의 선택에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한 평생을 “떡을 떼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느껴온 사람도 있고, “빵”이라 하면 종로 한복판에서나 만날 수 있는 뉴욕 베이커리 같은 아주 모던한 분위기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셨다고 하면 의미상의 동등성을 논하기 이전에 정서적인 거부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마련이다. 흔히, 제도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때로부터 한 세대가 더 걸린다고 한다. 성경 본문의 변화는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설령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쉽고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번역어의 표현이 변화되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에게 성경을 제공한다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언어로 성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대전제이다. 그리고 그 문장언어는 언제든지 입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입말과 다른 문장언어는, 『표준새번역』(개정판)의 문장언어와 같이, 그냥 눈으로 읽어나가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소리를 내서 읽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어린이 성경은 어른 성경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또 어떤 점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읽을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입말이 성경의 기본 문체가 되어야 한다.

### 2.2.3. 글말형 문장언어와 입말형 문장언어

『표준새번역』(개정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언어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언어이다. 『표준새번역』(개정판)의 문장언어는 ‘-다’ 종결형 문장으로서, 또 하나의 글말형 문장이다. 이 문장이 곧 사람들

의 머리 속에 있는 문장언어이다. 이 문장은 입말 그대로가 아니다. 이 문장으로 읽거나 쓰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이 문장을 소리 내서 입말로 읽으려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생긴다. 입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들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입말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방송국의 방송용 언어들과 방송용 기사들은 철저하게 입말을 전제로 기록된다. 이는 신문사나 잡지사의 문장과 방송국의 방송용 문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쉽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개역한글판』을 읽는 독자들은 개역 성경이 시적인 운율이 있다고 말한다. 『공동번역』이나 『표준새번역』을 『개역』과 비교해서 말할 때, 이 문제는 간간이 언급된다. 이것은 개역의 옛 문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측면의 모든 언급은, 개역 성경의 글말의 뿌리가 입말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소리를 내서 읽어 보면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다. ‘-다’ 종결형 문장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된소리인 ‘ㄷ’ 소리만 두드러지게 들린다. 모든 말이 “-았/었다”로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 말을 모르는 외국인이 이 문장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 왜 한국어에는 그렇게 ‘ㄷ’ 소리가 많냐고 묻는다고 한다. 이에 비해서 ‘-라’ 종결형 문장은 소리 자체의 느낌이 된소리인 ‘ㄷ’ 소리보다는 훨씬 부드럽다. 무엇보다도 ‘-다’ 종결형 문장은 입말이 아니다.

말이란 기본적으로 입말을 말한다. 입에서 소리를 통하여 귀로 전달되는 것이 말이다. 글말은 입말을 담아두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이다. 성경의 본문은 입에서 귀로 전달되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언제든지 다시 입으로 읽고 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성경은 회중이 함께 소리 내서 읽는 책이다. 혼자서 눈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읽는 책이다. 언제든 입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어른들의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낭송용 테이프를 제작한다거나, 영화 필름으로 제작한다고 할 때, 본문 그대로 입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성경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입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까닭은, 어린이들에게는 입말이 더 오랫동안 배운 말이기 때문이다. 글말은 배우고 있고, 또 배워나가지만, 아무래도 2차 언어이다. 입말이 더 친숙하고 가까운 수밖에 없다. 그들의 머리(마음) 속에 있는 랭귀지와 가까운 말로, 아니 바로 그 말로 된 성경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 2.3. 역사와 문화의 차이

우리 나라의 이야기도 백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당시의 삶의 방식이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 백년 전으로 갈 것도 없다. 서울의 어린이들에게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한다는 이야기나,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나, 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이다. 하물며 이천 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와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각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의 제목이 담고 있는 뜻이나 저자나 역사적 문화적 배경들을 간단하게 안내해 준다면 독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룻기에 나오는 “수혼법(嫂婚法)”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 사용했던 “무릿매”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 설명해 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이 시공간적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특히 본문의 내용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따로 살펴야 하리라 생각한다.

### 3. 어린이 성경을 위한 문체의 검토

표준새번역 개정판이 출간되어 나오고 나서, 시편 검토 및 개정의 책임을 맡았던 번역자께서 시편의 문체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시편의 기본 문체를 “하였다” 체로 할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체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시편 안에는 기도문도 있고, 독백적인 진술도 있고, 일반적인 서술문도 있고, 내용의 특성상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그리고 기본 문체는 ‘하였다’ 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하였습니다” 체로 되어 있다. 문체에 대한 그 번역자의 언급은, 기본 문체로 ‘하였다’ 체로 번역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체는 시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제이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일반 서술문을 “하였다” 체로 ‘-다’ 종결형의 문장으로 하였고, 바울의 편지들은 한 개인이 교회들에게 한 편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였습니다” 체로 번역을 하였다. 한 사람의 사도가 공중에게 전하는 말의 말씨를 비격식체인 반말로 할 것인지, 격식체의 정중한 말씨를 써서 하도록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성경 각 책의 문학적 형식에 따라 문체를 조정한 것이다. 문학적인 양식에 따른 차이를 문체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서는 그 이전에 일반적인 서술문의 종결형을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그것의 내적 외적 타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제는 성경은 입으로 전해지던 것을 글로 기록한 책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전제는 글말은 입말을 글에 담아둔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 전제는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책이라는 점이다. 물론 혼자서 눈으로만 읽을 때도 있지만, 기록된 글말은 공중이 함께 읽을 때에는 입말로 소리 나는 대로 읽는다.

네 번째 전제는, 글말은 입말로 살아나기 위한 잠재적 형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서술문을 지금의 입말 형태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오늘날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말은 “-입니다” 체이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담화문이 그렇고, 방송 뉴스의 모든 입말이 그렇다. 그 밖에 모든 공식적인 대화에서도 이러한 입말이 사용된다. 이 입말체 문장을 그대로 어린이 성경의 기본 문장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어린이 성경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의 문장과 문체도, 『신약전서 새번역』(1967)의 문체처럼 ‘입니다’ 체의 문장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입니다’ 체의 입말은 말하는 이가 전제가 된다. 말하는 이의 주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신문 기사나 학술 논문이 ‘-입니다’ 체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이 가지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문체로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이다.

성경의 기본 문체를 정함에 있어서, 높임의 개념이 있는 종결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높임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시대의 수직적인 계급의 높낮이를 뜻하는 높임이라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사용하는 수평적 사회의 정중함 또는 예의 바름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격식체 어법이다. 국민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하고 말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직적으로 교사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수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상대하는 교실에서, “너희들 잘 있었니?” 하고 말하는 것도 어색하다. 언어를 ‘높임’과 ‘낮춤’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이미 전근대적 봉건적인 사유 형식에서 나온 문법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격식체, 비격식체’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내용에 더 정확하게 어울리는 방식이다.

다음 두 본문을 누군가에게 읽어 준다고 생각해 보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표준새번역개정판 창 1장)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표준새번역개정판 마 2장)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입말로 이 내용을 전해준다고 생각하면,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그대로 입말로 이 내용을 읽어준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어색하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듯이, 편안하게 이 본문을 소리 내서 읽어줄 수가 없다. 다음의 본문을 읽어 보자.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어요. (표준새번역개정판 마 2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표준새번역개정판 창 1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이 본문이라면 훨씬 자연스럽게 읽어줄 수 있다. 성경 본문을 성우들이 그대로 구연을 한다고 할 때에, 앞의 본문으로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된 본문으로는 그대로 구연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는 ‘입니다’ 체로 설교를 하면서, 성경만 ‘하였다’체로 된 것을 읽는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성경의 문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말로 전환하여도 그대로 입말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습니다. (표준새번역개정판 마 2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4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표준새번역개정판 창 1장, 밑줄 부분 종결형 변환 필자)

이렇게 된 본문을 읽어준다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대로 입말로 바꾸어서 읽어줄 수가 있다. 아무도 입말로 말하지 않는 문장 형식을, 성경의 본문의 기본 문장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특별히 귀로 듣는 성경은 입말형이어야 한다. 병원의 환자들, 수족장애인들, 교포들의 언어 학습용, 문맹인 독서장애인성경, 운전기사와 같이 특수한 환

경에 있는 직업인용 성경, 이러한 낭송용 성경은 입말형이어야 한다.

입말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개인의 일기를 쓴다고 하면, ‘-쓰다’ 종결형의 중립적 문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입말로 바꿀 필요가 있는 글말이라면, 다른 변환 과정 없이 그대로 입말로 바꿀 수 있는 문장 형식으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방송국에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읽는 기사문을 쓴다고 할 때에 기본 문장을 ‘-했다’ 종결형으로 하고, 읽으면서 그 순간 이 문장을 다시 ‘-니다’ 꼴로 바꾸어서 읽는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번잡하겠는가? 당연히 방송에서 소식을 전하는 뉴스의 원고 문장은 ‘-니다’ 체로 작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눈으로만 읽고 입말로 다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신문 기사문은 “-다” 종결형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어색해 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본 문장 문체가 지금처럼 ‘다’ 종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본문 형식에 눈으로 읽는 문장의 성격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말과 글말이 같다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본문의 내용이 훨씬 더 친밀하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의 우리 모두의 머리 속에는 ‘-쓰다’ 종결형의 글말 체계가 또 하나의 문장언어로 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글말을 많이 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장이 낯설지 않다. 오히려 생활 속에서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모든 문장에서 ‘-습니다’ 체의 글말을 더 적게 접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니다’ 체의 글말이 좀 더 낯설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글말보다는 입말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입말과 같은 글말이 궁극적으로는 더 친밀하게 느껴질 것이 자명하다.

#### 4. 어린이 성경의 편집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어려운 낱말을 정할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 주어야 할지,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의 분량이 수용 가능할 것인지 하는 점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성경은 전체의 분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충실하게 한다고 해서, 들고 다니기조차 무거울 정도로 책이 두꺼워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글씨도 너무 작으면 안 될 것이고, 책도 지나치게 두껍거나 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린이용 성경에 글자가 뻑뻑한 낱말 사전을 만들어 준다면, 어린이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릴 것이다. 그림을 넣는 것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어린이들이 성경을 친밀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사진보다는 실감이 떨어지겠지만, 그림은 사진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먼저 편집 실무자가 전체의 분량을 고려하여 몇 페이지마다 몇 개의 그림을 넣을 수 있는지를 설계하고, 성서학자가 이를 바탕으로 본문의 내용에 필요한 그림 설계 문건을 작성하되, 기계적으로 편집자의 설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증감을 허용하여 ‘그림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의 계획서가 나오면, 먼저 그 가운데서 사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하고, 사진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림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과 그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선별하여, 그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밀묘사의 펜화는 칼라로 인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칼

\* 대한성서공회 성서교육문화센터에서, 교회 주일학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서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 일이 있다.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그림을 보내 왔고, 매우 인상적인 좋은 그림들이 있었다. 편집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작성한 ‘그림의 계획서’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그림의 제목과 그림에 들어갈 내용으로 공시하여, 한국 어린이들이 저마다 그 제목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리게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성경 그림을 어린이 성경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쇄를 전제로 한다면, 한국화(또는 동양화)의 전통을 고려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수채화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밀묘사보다는 내용의 특징만을 드러내는 방식의 캐리커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굿뉴스바이블』에 실은 애니 발로통\*의 그림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다. 사람을 그린다 할 때에, 가장 보편적인 느낌의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으로 그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종간의 차이나 민족 간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특징을 띠는 그림이 된다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5.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과 한국 교회의 미래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번역을 주고서, 그들이 이해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이다. 우리도 그 문장으로 성경을 읽어 왔는데, 너희는 왜 못 읽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텔레비전이며 컴퓨터며 비디오며,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장이며, 이러한 온갖 일 속에서 잠시도 시간을 낼 수 없는 지금의 어린이들을, 읽을 것이 성경밖에 없던 시절의 어린이들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그들의 마음(머리) 속에 있는 낱말들과, 그들의 마음(머리) 속에 있는 문장으로 번역한 성경을 그들의 손에 들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의 마음(머리) 속에 들어 있는 문장과 같은 문장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과 달리 된 문장으로 된 성경을 읽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에게 개역한글판 성경을 독서용으로 준다면 불과 한 쪽도 다 읽지 못하고 책을 던지고 말 것이다. 그들의 마음(머리) 속에 있는 ‘토박이 문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어려운 성경을 팽개쳐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 버린다면,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다. 근래에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거나, 삼분의 일로 줄었다고 하는 보고들이 나온다고 한다.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주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틀림없이 문제의 핵심을 간과한 채로 변죽만 울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유초청소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라나고 있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30년 60년 100년 후의 한국 교회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 Annie Balloton. *Good News Bible* 속에 들어 있는 삽화를 그린 사람.

<Abstract>

## Literary style proposals for a Korean children's Bible

Mu-Yong Jeon

1.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literary style for a children's Bible.
2. It seeks to envision a Bible that can be read easily by children in terms of vocabulary and phrasing.
3. Whenever possible, the words of a children's Bible should be translated into the easiest ones available if the same content can be delivered. In case this is not feasible, it is recommended to edit the page by adding footnotes or illustrations easily understandable to children.
4. The Bible is a book that is read aloud in church groups. It therefore should be composed of sentences that can be read verbally without conversion.
5. The task of producing a Bible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and read by children marks the first step of preparations for the future Korean church, in 30, 60 or 100 years' time.